

## 중국 현대문화에 있어서 '인문정신' 논쟁\*

-90년대 중국문화현상을 중심으로 -

박승현 (중앙대 강사)

주제분  
류

중국철학, 중국현대문화

주요  
어

한류, 상업화, 인문정신, 중국식 사회주의

요약  
문

본 논문은 현재 일고 있는 '韓流'현상의 원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중국 현대문화의 전개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를 위하여 9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인문정신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인문정신 논쟁의 발생 배경과 그 전개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사회의 변화의 근본적 방향은 시장화라는 목표 하에 점차적인 체제전환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상업화'의 논리로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구조 변화를 가져와, 사회제만 인프라가 구축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의 제반 여건과 생활수준도 향상되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이념적 공백과 전통적 윤리의식이 급속히 와해될과 동시에 '시장경제개혁'의 결과로 근 40여 년 간 지속되어져온 사회주의 '계층'의 구조도 무너지게 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이 주도했던 경직된 윤리의식에서 벗어나, '소비문화'가 주도하는 변화된 사회 현실에 맞는 가치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식인의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사회 전체가 거대한 시장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가치혼란과 상실을 겪게 되고, 작가들은 경제개혁의 과정 중에서 점차로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래서 90년 이후 지식인 계층에서 생존을 제일의 가치로 두고,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작품활동을 추구하는 일련의 지식인들이 출현한다. 이들은 치열한 현실인식을 지니지 못한 채 부유하고, 지식인이 지녀야 할 정신적인 가치와 자율적 기능을 상실하고, 통속적 작품들을 쏟아내게 되었다.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이러한 일부 지식인의 상업화 현상에 대한 자기반성을 시도한다. 이것이 이른바 '인문정신'의 토론을 불러오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이 논의의 중점은 사회문화의 각 방면에서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인문정신의 상실에 대한 집중적 비판과 아울러 새로운 인문정신의 건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2002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2-AM2014)

## 1. 문제제기

우리가 이른바 중화인민공화국, 즉 현대의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지만, 몇 년 전 우리를 들뜨게 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바로 동남아뿐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도 ‘대중가요’, ‘TV드라마’, ‘영화’, ‘연극’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큰 인기를 끄는, 이른바 ‘韓流’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한류에 대한 열기가 전에 비해 조금 시들하다. TV의 몇몇 연예프로에서 우리 연예인들의 활동 보도에서나 한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냉정히 돌아보면 몇 년 전부터 열기 시작한 한류에 대한 열기와 그에 대한 신문보도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것은 역사 이래로 우리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주동적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고, 또한 분단된 약소국의 문화가 중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와 경제적으로 부유한 일본 등에서 그들의 관심을 끌고 소비되고 있다는 것, 즉 문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는 자긍심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냉정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류’를 대부분 경제적 측면, 특히 문화산업적인 면에 치중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이윤추구의 측면에서만, ‘한류’를 주목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장기적이고 발전적 문화교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극히 편협한 ‘아류 문화제국주의’라는 비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2)</sup>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전한 한중간의 문화교류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자신의 문화적 기반과 내용에 대한 반성<sup>3)</sup>과 아울러 문화산업 측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적 교류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문화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상업문화라고 하는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마련이다.<sup>4)</sup> 어떤 문화가 수입되어 유행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시장의 필요와 논리에 따른 것이다.

- 1) 최근에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된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는 곧 돈’이라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문화와 예술이 단지 여가를 즐기는 오락이나 교상한 정신적 취미 활동 정도로 취급받곤 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에 대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할리우드 ‘쥬라기 공원’ 한 편의 영화 수입금이 우리나라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해야 벌 수 있는 수익과 맞먹는다는 계산법이 한때 신문지상을 메운 적이 있다. 김영삼 정부 당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대통령 보고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는 이 단순한 계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문화가 엄청난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각성과 함께 1994년 당시 문화체육부에 문화산업국을 신설하기까지 하였다. 그로부터 우리 사회에서 소위 ‘문화산업’이라는 말도 열풍처럼 번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문화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21세기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 2) 우리는 ‘한류’의 현상에 대한 자기반성이 앞서야 한다. 다시 말해 ‘한류’로 지칭되는 그러한 대중문화가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단순히 한국이 생산한 상품을 해외에 많이 수출하면 좋다는 식으로 그쳐서는 ‘한류’라는 것이 분명 일시적인 유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원용진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는 20여 년 전 가깝게는 10여 년 전까지 우리 안에 부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바람에 대해 사회적 고민을 펼쳤다. 미국과 일본 문화에 탐닉해 있는 젊은 층들을 질타하며 우리 문화를 지키는 방안을 쏟아냈다. 미국과 일본의 문화적 침투는 곧 상품 판매 등의 경제적 침투로 이어진다면 열 오른 거부의 목소리까지 났다. 이 같은 경향을 지닌 우리이면서도 ‘한류’를 역지사지의 맞바람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 역지사지로 본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다. 당장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수배해내고 이 기회에 시장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는 천박한 시장개척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한류상품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뻔히 알면서도 팔아야 한다는 일념을 보이고 있는 우리는 혹 ‘아류 문화제국주의’를 펼치고 있는 건 아니지?”(원용진, 한겨레신문 2001년 9월 26일)
- 3) 이동연은 다음과 같이 우리 문화 인프라의 현실을 비판한다. “과연 한류가 문화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까? 변변한 전문 라이브 공연장 하나 없고, 서른이 넘으면 가수 인생 환갑을 맞고, 수 없는 아이돌 스타들이 제작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복 교체된 우리 현실에서 그 모순을 그대로 안고 간 한류 열풍이 과연 우리의 문화적 자질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이동연, 문화일보 2001년 9월 8일)
- 4) 강만준, 『대중문화의 길과 속』, 인문과 사상사, 18쪽

‘韓流’도 중국의 대중 문화시장의 수요에 따라 수용된 외래 대중문화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류가 유행하고 있는 각국의 문화시장의 구조나 그 사회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히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 우수성이나 문화적 근접성에만 근거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다.<sup>5)</sup> 먼저 다양한 측면에서 그 사회의 내적인 변화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도 외국의 대중문화를 받아들여 되기까지는 여러 차원의 준비과정과 제도적인 변화를 거쳐왔지만, 그에 따른 사상적 정서적인 측면의 변화도 수반하게 되었다. 외국문화를 철저히 배격했던 문혁시기에서 벗어나 가장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대중문화의 대량 유입과 유행이 있기까지 중국은 여러 차례 사상적 논쟁과 정치적 문화적 굴곡을 겪어야 했다.<sup>6)</sup>

개혁개방 이후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중국은 물질과는 초연하게 담을 쌓고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사회에서, 이제는 소비 풍조가 만연된 물질 중심의 사회, 즉 자본주의적 양상을 띤 사회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90년대에 들면서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담론을 시작한다.<sup>7)</sup>

그렇다고 하여 중국의 사회와 문화를 분석하는 틀을 쉽게 서구적 관점,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사회의 관점을 빌어서 중국사회에 접근하는 것은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내용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표면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막연히 서구의 대중문화론에 입각하여 중국의 대중문화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sup>8)</sup>

중국 현대 문화의 내용 면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중국적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현재 중국의 문화 형태를 ‘주류문화’ ‘지식인 문화’ ‘시장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류문화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문화이다. 오늘날 중국의 ‘주선율’은 정통 이데올로기의 문화적 표현 형식이다. 그것은 당의 지도자를 부각시키고 혁명전통을 고양하며, 사회주의의 정신문명을 제창하는 것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 또 다른 문화의 한 형태가 바로 사회 문화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문화’를 들 수 있다. 시장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물음

5) 역으로 생각해보면, 80년대 초 ‘성룡’, ‘주윤발’, ‘장국영’ 등이 주연한 홍콩의 영화와 그 배우들이 우리나라 광고에까지 등장하여 크게 인기를 끌었던 현상도 우리의 시장논리와 우리사회의 필요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수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콩문화의 우위성 혹은 문화근접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점은 한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제의 흐름에 일어나는 문화의 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중국은 1세기 동안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철저히 자기 비판의 과정을 거쳐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세기 초반의 ‘5·4신문화 운동’과 정치적 의도가 짙기는 하지만 6·70년대의 ‘문화대혁명’, 그리고 개혁개방 시대인 80년대 들어서 벌인 ‘문화열’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반제반봉건’을 중심 목표로 한 것으로 서방의 자본주의와 중국 봉건주의의 제도와 문화를 비판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7) 戴錦華, 『隱形書寫-90年代中國文化研究』, 江蘇人民出版社, 1 쪽

8) 서구의 대중문화의 논의로 기타 문화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강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너무나도 적절하다. “구미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어 온 대중문화론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구조적 배경에서 야기된 문화현상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구미적 대중문화론은 구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사회구조적 배경 속에서 생성된 한국사회의 대중문화현상을 도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띤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은 오늘날 대중사회나 정보화사회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기타 국가의 대중문화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미 사회와 전혀 다른 사회구조와 그 사회구조 변화, 그리고 그 문화체계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대중문화현상은 구미제국의 대중문화현상과는 또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강수, 『대중문화와 문화산업론』, 130쪽) 중국사회가 자본주의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시대할 때도 이강수의 이러한 지적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을 제기한다. 이러한 지식인 문화와 반대되는 대중문화로 통칭되는 ‘시장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9)</sup> 이러한 중국 현대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이 자본주의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서구의 이론과 관점으로 중국의 현대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중국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90년대 이후 문화예술의 생산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생산기계의 변화와 대중문화 시장의 형성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창출되었다. 그것은 상품 경제시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화 현상이다. 이러한 대중문화에 대하여 중국은 두 가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문화의 오락적 기능에 대한 인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쉽고 가벼운 오락 속에서 주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려는 것이다.<sup>10)</sup> 90년대 이후 이러한 대중문화는 전통적 가치관념이나 사회의 주류문화를 대신해서 중국의 현대의 의식형태를 새롭게 형성하는 중요한 동력과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 동안 중국사회의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지만, 그에 따른 이념적 공백과 전통적 윤리의식이 급속히 와해됨과 동시에, ‘시장경제개혁’의 결과로 30년 간 지속된 ‘사회주의’ 계층의 구조도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다.<sup>11)</sup> 사회적 이념과 원칙 그리고 계층의 구조가 허물어지면서 부패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사회악과 범죄율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처럼 사회주의 이념이 주도했던 경직된 윤리의식이 아니라 ‘소비문화’가 주도하는 중국의 변화된 현실에 걸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은 부심하고 있는 중이다.

논자는 ‘한류’가 중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 사회와 문화의 내적인 변화 과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류라는 것도 중국의 대중문화 시장의 논리와 흐름의 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해의 한 단초로써 개혁개방이후 중국 사회 변화의 근본 방향은 무엇이고, 중국의 사상계, 즉 지식인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고, 또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는가에 주목하고자한다. 90년대에 들면서 중국 지식계에는 여러 차례 큰 논쟁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문화의 상업화 경향에 따른 ‘인문정신’의 타락에 대한 논의를 벌인 90년대 초반의 ‘인문정신 토론’과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장기간 관료자본에 독점되어온 생산 자원을 어떻게 공개화 합법화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인 90년대 후반의 ‘신좌파와 자유주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논쟁은 모두 자본주의적 논리로 사회가 재편되어져 가는 당대 중국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9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인문정신’논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sup>12)</sup> 그것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자본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지식인들의 반응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자본주의의 경험이 중국보다 앞선 우리 사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9) 孟繁華, 『중국, 축제인가 혼돈인가』(김태만 이종민 역, 300 쪽 참조

10) 孟繁華, 『중국, 축제인가 혼돈인가』(김태만 이종민 역), 290쪽 참조. 이러한 점은 천안문사태 이후 인민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중국 정부의 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것은 80년대 초 우리의 부당한 정권이 소위 3S 정책을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술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1) 李陀, 王曉明주편, 在新意識形態的籠罩下-90年代的文化和文學分析 序3 쪽

12) 1993년 6월 <상해문화>에 왕효명을 중심으로 ‘인문정신의 위기에 관한 토론을 시작으로 하여 2년여 동안 지속되면서, 이 논쟁에 참가한 논문이 백여 편 넘게 발표되었다. ‘인문정신’에 관한 토론은 90년대 초반 중국 지식계의 중요한 토론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왕효명, 『人文精神尋思錄』, 후기 270 쪽 참조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용어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주로 지식인의 '인문정신'의 위기를, 우리는 제도상의 '인문학'의 위기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한다.<sup>13)</sup>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이러한 논점의 차이를 발생하는 것도 중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중국이 자본주의적 논리에 지배되어 가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전과는 색다른 문화, 즉 상업주의에 입각한 대중문화에 대하여 지식인들이 벌인 이른바 '인문정신' 논쟁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90년대 중국 문화의 전개 방향을 파악하는 단초로 삼고자 한다.

## 2. '인문정신 논쟁' 발생의 배경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불과 2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중국은 계획경제 체제하의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사회에서, 이제는 소비 풍조가 만연된 물질 중심의 사회, 즉 시장경제 체제의 자본주의적 양상을 띤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sup>14)</sup> 이 기간 중국사회의 변화의 근본적인 방향은 '시장화'라는 목표 하에 점차적인 체제전환의 길을 걸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시장화'로의 급격한 체제전환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의욕과 경제적인 동기를 자극했고, 과거의 계획경제에 비해 훨씬 큰 경제 효과를 낳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모순을 낳게 되었다. 몇 가지 큰 사회적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의 발전은 눈부신 반면 중공업 지대인 동북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였다. 특히 연해와 내륙의 격차, 개인 경영·외자기업과 국유기업 노동자간의 임금 격차 등이 확대되어 사회적 불만이 높아갔다. 둘째,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의 경향(向錢看)을 낳게 되어, 당의 간부와 일반 당원 대부분이 '상친엔칸(向錢看)'에 매달려 일상의 당무와 행정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관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경제적 부정과 사회적 부패가 심각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sup>15)</sup> 셋째, 개혁개방의 정책에 내재된 모순 때문에 경제적 혼란, 경제적 부정을 야기하고 있었다. 예컨대 개혁개방을 위해 경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이익 우선주의, 지방보호주의의 경향을 나타나게 되어 전체적 상황을 무시한 과잉투자 과잉생산을 낳게 되고, 이중가격제를 악용해 부당한 이

13) 우리사회에서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은 주로 '인문학 관련학과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에 따른 학제의 개편과 그에 '인문학'과의 위기초래에 따른 다양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손영식, 한국사회에 있어서 인문학의 위기 『철학연구』78집 참조)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중국은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지식인들의 '정신적 가치 상실'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4) 개혁개방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걸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그것을 말해준다. 그 기간 중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1978-2000년의 기간 동안 중국이 기록한 9.6%라는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매우 놀라운 수준이며, 이는 동기간 세계 평균성장률(3.3%)의 세 배에 상응하는 고도의 성장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다. 중국은 2000년에 이미 세계 7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에어컨(세계 시장의 50% 점유), 텔레비전(36%), 카메라(58%), 전화기(58%)등에서도 이미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고, 정보통신 부분에서도 3위의 생산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2001년 6월말 현재 무려 1,800억 달러를 소유한 세계2위의 외환보유국으로 성장하였다.(정재호, 중국의 개혁-개방 20년: 그 성공과 위기에 대한 평가,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5쪽 참조)

15) 이점에 관하여 何清漣, 『中國的陷陣』(중국은 지금 몇시인가, 김화숙 김성해역, 홍익출판사, 2004)을 참고 할 만하다. 그 책 속에서 저자는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관료계급의 정경유착을 통한 타락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사회의 공정성보다 '關係'(관씨)를 중시하는 사회가 낳는 모순을 중국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익을 얻는 ‘다오예(到爺, 일종의 브로커)가 횡행하고, 권력형 부패라고 할 수 있는 ‘관다오(官到, 관료인 브로커)’가 암약함에 따라 시민의 불평을 가져오게 되었다. 넷째, 시장 가격의 자유화와 함께 행정력으로 억제되고 있던 물가의 상승과 가격의 불안정화를 가져왔다. 개혁 개방 이후 1978-1983년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2.8%가 1984-1987년에는 7.3%로 증가했으며, 1988년 상반기에는 13%로 증가했다.<sup>16)</sup>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모순은 1989년 ‘천안문 사태’를 통하여 극단적으로 표출되게 된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사회주의’의 노선을 걷기 시작한 것은 천안문 사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덩소평이 1992년 천안문 사태 이후 침체된 중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광주 심천등 남방을 순례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적인 진행을 독려한 ‘南巡講話’<sup>17)</sup> 이후에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되었다. 특히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회에서 덩소평의 ‘남순강화’의 정신을 정확히 답습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주장한다.<sup>18)</sup>

이것은 중국을 40여 년 간 이끌어왔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와 결별을 선언한 것이며,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를 맡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화’의 논리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로 구조 변화를 실시해온 결과 사회의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생활수준도 향상되었지만, 그에 따른 이념적 공백과 전통적 윤리의식이 급속히 와해됨과 동시에, ‘시장경제개혁’의 결과로 근 40년 간 지속된 ‘사회주의’ 계층의 구조도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다. 사회적 이념과 원칙 그리고 계층의 구조가 허물어지면서 부패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사회악과 범죄율도 급증하게 되었다. 과거처럼 사회주의 이념이 주도했던 경직된 윤리의식이 아니라, ‘소비문화’가 주도하는 중국의 변화된 현실에 걸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마련하기 위한 지식인의 고민이 시작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사회의 각 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문화방면의 발전에도 ‘상업화’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된다. 90년대 중국문학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상업주의 대중문학이 급속히 대두되고 비약적인 확산을 이룬 것이다. 중국의 당대 문학사를 살펴보면, 문학예술은 줄곧 국가정치 권력의 선전도구로 존재해왔고, 작가와 예술가들은 모두 국가간부편제의 한 구성원으로서 창작활동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 중국 성립 이후 40여 년 동안 발표된 작품들은 국가의지의 체현이고, 작가의 주체적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문예창작 활동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 복무”라는 구호도 국가의 이념을 어떻게 선전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진정으로 노동자 농민의 심미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노력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신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대중들의 심미적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하게 됨에 따라, 정치선전 일색의 문예활동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다양한 문예활동이 동시에 존재하

16) 아마코 사토시,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153쪽 참조

17)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담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다. 전족을 한 여자와 같아서는 소용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주저하고 있던 시장경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스타일인 실용주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계획이 사회주의이며, 시장이 자본주의이라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수단이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또한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와 같은 논쟁을 하지 마라. 사물의 시비에 대한 판단할 때는 첫째 생산력의 발전, 둘째 종합적인 국력, 셋째 인민의 생활 향상에 유리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삼자” 등을 주장한다.(아마코 사토시,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임상범역), 168쪽 참조)

18) 王鑫, 『鄧小平發展觀與當代中國實踐』, 3쪽 참조

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주선율을 선전하는 문예 작품들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국가장려금 등으로 그 가치를 확인 받고, 소비형의 문학작품들은 대중문화 시장의 판매량으로 목표를 삼고, 순수 문학의 창작품들은 일정한 범위내의 전문가 그룹의 인정과 일정한 수준의 독자들의 환영을 지표로 활동을 벌이게 된다. 과거와 같이 분명한 방향이나 주된 조류가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학의 창작활동이 허용되는 환경을 맞이하였지만, 반면 지식인의 문학 활동은 대중문화와 국가이데올로기 선전문화에 의하여 상당한 도전을 받는 국면에 처하게 되었고, 지식인들이 자신의 문학적 활동과 시장경제체제와 관계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을 시도하게 되었다.<sup>19)</sup>

시장경제의 발전은 문학 창조의 주체자인 지식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인문정신의 상실'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숙작가들의 하해(下海)현상은 이러한 문학주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반영해 준다. 구시대 계획 경제체제 아래에서 문화의 창작 작업에 종사할 때는 이익의 문제를 회피하여 왔지만, 상품경제의 대 조류가 밀려오면서 지식인들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지위를 급격하게 상실하게 되었다. 중국사회 전체가 거대한 시장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가치혼란과 상실을 겪게 되고, 작가들은 경제개혁의 과정 중에서 점차로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sup>20)</sup>

그래서 90년 이후 지식인 계층에서 어떤 지식인은 생존을 제일의 가치로 두고,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작품 활동을 추구하는 일련의 지식인들이 출현한다. 이들은 치열한 현실인식을 지니지 못한 채 부유하고, 지식인이 지녀야 할 정신적인 가치와 자율적 기능을 상실하고, 통속적 작품들을 쏟아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체제 전환의 과정 중에 출현하는 필연적인 한 현상이지만,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이러한 지식인의 상업화 현상에 대한 자기반성을 시도한다. 이것이 이른바 '인문정신'의 대 토론을 불러오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sup>21)</sup>

문학의 방면 뿐 아니라, 중국의 TV드라마도 개혁개방 이후 줄곧 상업화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드라마는 생산과 유통은 정부와 시장이라는 이중적인 제약 속에서 발전해 왔다. 1979년 처음으로 TV방송에서 광고가 시작된 이후로<sup>22)</sup> TV 제작 자금 방식이 정부지출에서 광고수입으로 발전하게 된다.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광고 수입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통속적인 드라마 제작의 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게 된다. 80년대에 들면서 중국의 TV가 공공TV에서 상업TV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정 부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에 흐름과 함께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 陳思和主編, 『中國當代文學史教程』, 322 참조

20) "본질적으로 경제라는 전쟁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인문학 지식인들은 숙명처럼 시장경제의 영역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통적인 인문주의적 이상 역시 왕년의 신성한 빛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크나큰 상실감이 먹장구름처럼 이들 집단의 머리 위에 짙게 드리워졌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1993년 차평와의 장편소설 『폐허의 도시』의 출판이다. 이 작품은 강렬한 상실감을 통해 인문학 지식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비애와 문화적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황즈띠에는 시장의 시끌벅적한 잡소리들 속에서 물결 따라 마냥 흘러가거나 아니면 극단적 방식으로 세속적 생활 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 심리 상태와 운명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지식인들의 정신적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孟繁華, 앞의 책, 292쪽)

21) 陳思和主編, 『中國當代文學史教程』, 324 참조

22) 上海TV가 최초로 상업성 TV광고인 1.5분짜리 '인삼계피주(參桂補酒)'를 방송한 이후로 TV가 '당과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것에서 상업화로 나가게 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劉燕南, 중국 TV극의 시장현황과 동향, 『현대중국의 이해』 381 쪽)

특히 1987년 제 13차 당 대회 이후 TV에 대한 상품 경제, 시장경제의 영향은 점점 강화되기 시작하게 되었다.<sup>23)</sup> 광고 수입의 예를 들어보면, 1987년 중앙 TV 방송국의 광고 수입은 이미 2,700만 위엔에 달하여 1,300만 위엔의 국가 보조비 2배 이상을 넘어섰다. 1994년에 이르면 중앙 TV 방송국이 획득한 광고 수입은 12억 위엔에 이르렀으며, 1998년 전국 TV광고 수입은 133.6억 위엔까지 높아지게 된다. 광고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TV 매체는 경제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의존하여 발전을 촉진시켰다.<sup>24)</sup> 이것은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도 상업성을 중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일부 제작사에선 외국의 TV업자들을 통해 선진기술을 흡수하여 그 제작방식을 선진화하게 된다. 그 성공사례가 바로 1990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TV 드라마 <갈망渴望>을 들 수 있다. <갈망>은 제작방식에서 선진화하였을 뿐 아니라, 과거 정치적 선전에 치중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대중문화에 접근하게 된다. 희극적인 절정과 선명한 도덕적 구분을 담아내고, 일반민중의 시작에서 민중들의 희로애락을 집중적으로 표현해낸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통속적인 TV드라마가 중국 TV 드라마의 주류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갈망>의 성공요인은 제작방식 내용선정 사회적 반향 때문이었다. 이것은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TV드라마가 단순히 정치교육의 역할에서 벗어나, 대중에 대한 서비스로 인식이 전환되고, 외국의 상업적 드라마 수입의 영향으로 사회의식은 이미 TV드라마의 오락성과 상업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업화’로의 체제 전환의 역사적 국면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의 건립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지식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 3. 인문정신 논쟁의 주요 쟁점과 전개

1993년 『上海文學』제 6기에 왕효명 교수와 그의 학생들의 대화 광야의 폐허- 문학과 인문정신의 위기가 발표되면서 소위 말하는 ‘인문정신’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왕효명(王曉明)은 “오늘날 문학의 위기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것은 대중문화의 소양이 보편적으로 하락했음을 밝혀주는 것일 뿐 아니라, 더욱이 몇 대에 걸쳐서 사람들의 정신적 소양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문학의 위기는 실제로 당대 중국인의 인문정신의 위기를 드러낸다”<sup>25)</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 논의의 중점은 사회문화의 각 방면 특히 문학방면에서 지식인들이 상업화의 시장경제논리에 따라서 ‘인문정신’의 상실에 대한 집중적 비판과 아울러 새로운 인문정신의 건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1) 지식인의 자기 반성

90년대 제기된 이러한 인문정신의 상실은 표면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에 따라 야기된 도덕적 해이와 타락과 가치상실에 대한 비판—이러한 비

23) 1987년 제13차 당 대회는 개혁주의자들이 전면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내걸고 시장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던 대회였다. 이 대회는 ‘시장’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적인 상품경제”이고 “국가가 시장을 조정하고 시장이 기업을 인도한다”는 개혁목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의 총체적인 발전 속에서 ‘시장’이 중요한 위치를 확립하게 된다. (아마코 사토시,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 임상범역, 151 쪽)

24) 윤홍, 중국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 『중국의 창』권 44-49쪽 참조

25) 王曉明, 曠野上的廢墟-文學和人文精神的危機, 『人文精神尋思錄』, 2쪽

관은 문화의 상업화와 일부 작가들의 시장화 문제에 집중됨—에서 출발하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지식인들이 그 동안 누려왔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상실하고,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 것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6)</sup>

90년대 들면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하여 거의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전통 지식인들이 이성적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던 상황은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나 정치가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근대 이래 지식인들의 존재이유로 작용하던 이성 진리 정의 가치 존엄성에 대한 관심이 사라짐에 따라 지식인들이 사회적 지위가 바뀌게 된 것이다. 지식인 존재의 본거지인 대학 캠퍼스 역시 더 이상 문화의 요람이나 사상 활동의 정원이 되지 못하고, ‘소비성’ 사회와 시장 사회의 일반적 원칙인 실용성 직접성 단기성의 제약을 받았다. 대학은 보습학원이나 전문적 생산 인력(상품)을 길러내는 공장이 되었다. 전통적 의미에서 ‘이치를 전하고 수업을 하며 의문을 해소하는’ 식의 교육은 이미 사망했다. 전통적 고전이나 가치관에 대해 돌아보거나 관심을 가지는 이가 없어졌다.”<sup>27)</sup>

이처럼 80년대와 비교할 때 90년대 지식인의 심리 상태나 태도는 더 이상 우월적이지 못하였다. 80년대는 지식인들이 계몽적인 역할을 담당했었고,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이데올로기가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개혁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등소평의 사회주의 개혁운동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국가권력에 비호를 받았고, 또한 대중들의 대변인으로서 개혁이념을 선전하고 대중들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천안문 사건’을 거치면서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근대화의 개혁적 주장들은 더 이상 국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식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을 구호로 내세우는 근대화의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지식인들은 정치권력에서 소외되게 되었다.

또한 90년대 들면서 대중들이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발전의 궤도에 접어들면서, 대중들은 더 이상 지식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시장경제가 가져다주는 물질적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시장경제가 초래한 상업 문화와 대중문화에 아무런 저항 없이 대중들이 빠져드는 모습 앞에서, 지식인들이 이상적인 가치로 부여했던 자유 평등 정의라는 구호들이 도시의 대중들에 의하여 세속적으로 해석되고, 가장 원시적인 배금주의와 개인주의 경향을 부추기는 것을 왜곡됨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지식인들은 더 이상 대중들의 스승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고<sup>28)</sup>, 대중들에 의해 교화되어지는 자리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총체적 위기의식에서 인문학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문학의 위기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학잡지들은 잇달아 상업주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새로운 작품의 질적 수준이나 양도 보편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감상력을 가진 독자 또한 날로 줄로 있고, 작가와 비평가들은 때맞추어 작업을 잘못 선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下海(상업주의에 편승하는 것)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sup>29)</sup>

26) 陶東風, 인문정신 논쟁에 대한 성찰 『인문학의 위기』백원담편역 119 쪽

27) 李小兵, 시장경제와 가치모순, 孟繁華 위의 책에서 재인용 287 쪽

28) 蔡翔은 중국의 전통적 지식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 지식인들은 줄곧 ‘천하의 스승(爲天下師)’이라는 전통적인 멘탈리티를 견지하고 있었다. 명확하게 말하면 ‘道通’을 통해 政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지식인들의 자기 역할 규정은 문화적 계몽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의 주요 기획자였다는 점이다. 그들이 중건하기를 갈망했던 것은 사회의 문화질서뿐만 아니라, 정치질서였고 그렇기에 자신의 담론권력을 건립했다”(道統, 學統與正統, 『人文精神尋思錄』, 47 쪽 참조)

상업화의 경향으로 인하여 인문정신의 ‘상실’과 세속적 가치로의 ‘전락’이라는 현실 앞에서 지식인들이 먼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중문화’ ‘상업문화’가 판을 치는 외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논의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들은 1990년대 문학과 문화의 상황을 ‘문학의 위기’ ‘인문정신의 상실’이라고 규정하였다. 무게 있는 잡지들이 시장의 논리를 쫓아 통속잡지로 전향하고, 고매한 정신의 수호자인 작가들도 돈을 벌기 위하여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현실에서 문학의 엄숙성과 성실성이 훼손 당하고, 인생의 존엄성과 진정한 가치들이 모두 그 정당한 권위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인문정신의 상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세속적인 상업주의에 영합하는 작가들에 대하여 ‘조소’와 ‘쾌락’의 문화를 전파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려는 데 급급하고, 또한 저급한 문화의 생산자들은 신념의 대상이던 ‘정신적인 가치’들을 부정하고, 해체시켜버렸다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전환기에 서 있는 지식인들이 직면한 주요한 위기의식은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의 사회체제 아래에서 지식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신적 전통을 어떻게 보전하고 발휘할 것인가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sup>30)</sup> 따라서 인문정신의 상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1990년대의 문학이 문학의 특권이었던 인간과 삶에 대한 고뇌와 방황의 진지한 탐색을 포기하고, 대신 부정과 파괴와 기만적인 도피로 가득 차 있다고 파악한다. 모든 것이 부정되고 남은 것은 ‘폐허’의 정신으로 폐허의 현실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가치 허무주의뿐이라는 것이다. 이상주의는 후퇴하고 허무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폐허를 통탄하는 마음에서 인문정신의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낳게 되는 상업화되어 가는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먼저 지식인 자신의 성찰과 자기반성으로 이어진다. 국가권력에서 배제되고 대중에게 외면 당하는 이중적인 소외의 현실 앞에서 이러한 위기감의 원인이 타락한 외부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생존의 위기의식’에 빠져 있는 내적 주체의 허약함에서 찾게 된다. 지식인의 자기 정체성 확인 작업은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역할 찾기를 내용으로 한다.

## 2) 인문정신 논쟁의 전개

### (1) 인문정신 상실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새로운 현실 앞에서 ‘인문정신’의 상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학과 문화의 전반에 걸쳐 상업주의화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아울러 대중문화의 저속화 그리고 지식인들의 자아상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90년대 들면서 급격하게 진행된 중국 사회의 시장화, 즉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문학예술의 주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학을 포함한 문화의 생산주체가 전통적인 지식인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인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인문정신상실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즉 문학과 예술의 ‘상업화’ 경향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 문예이론에 근거한 중국문화에 대한 誤讀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장굉(張宏)은 문학 창작의 측면에서 ‘세태에 따르는 것’(媚俗)과 ‘스스로 즐기는 것’(自娛)이 문학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즉 “문학이 ‘도를 신는(載道)’의 기능이 점차

29) 王曉明, 광야의 폐허-문학과 인문정신의 위기 『인문정신심사록』 1 쪽

30) 진사화, 위의 책 325쪽

다른 전파매체가 대체하고 있고, 인민들의 발언능력이 발달하다 보니 문학의 '도를 씌는' 일 또한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의 기능은 하는 수 없이 '사랑 타령(戀情)'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바로 스스로 즐기는 행위를 예쁘게 꾸민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한다. 이것은 바로 문학이 가진 고유한 기능인 사회적 계도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학이 자신의 신념이 없어져서 외재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외재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그에 따라 대중의 구미를 좇아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세태를 따르는 방식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문학이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여 자신의 호구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문학의 타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작가로 왕삭(王朔)을 들고 있다. 왕삭의 문학을 '진달문학'이라고 칭하고, 왕삭이 말하는 것은 사회 '풍자'가 아니라 '조롱'이라고 평가한다. '풍자'는 겉보기는 희극적이지만 그 안에는 엄숙함을 가지고 있다. 반면 조롱은 생존의 엄숙함을 소멸시키고 인생을 가벼운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가벼움과 쾌감만을 추구하여, 결국에는 허무주의 즉 폐허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장난식의 조롱과 조소 속에서 일종의 자위적 방식의 쾌감만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sup>31)</sup> 문학에서 이러한 장난식의 빈정거리는 태도는 사회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지 않으며, 단지 "대중들의 불만과 무엇인가 욕을 내뱉고 싶은 대중들의 심리에 영합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단지 이를 통하여 울분을 배설시키는 쾌감만을 얻을 뿐이다"<sup>32)</sup>고 비판하게 된다. 이것은 왕삭과 같은 이른바 대중적 인기 영합하려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단지 언어의 유희를 통하여 독자의 감각을 자극시키고, 시장경제의 체제에 발빠르게 영합하는 작가의 '돈벌이(下海)'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가들에게는 비판정신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문학과 예술을 단지 '놀이판' '즐긴다'는 것을 최대의 명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장예모의 영화 <홍등(大紅燈高高挂)>에 대해서도 장녕(張寧)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표현했던 진부하고 너절한 것에 대한 작가적 비판의식이 과연 조금이라도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것을 자기 멋대로 분석하고 가지고 놀았다."라고 비판한다. 또한 서린(徐麟)은 장예모의 작품이 단지 "영화를 통하여 '중국문화'를 표현해 것이므로 서구인들의 시야를 열어 주었다. 중국 측의 과도한 반응은 '포스트모더니즘'류의 새로운 조류라는 예술에 탐닉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작 작품이 갖는 가치 취향의 진부함을 간과하고 있다. …… 여기에서 장예모가 추구한 할리우드 정신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인문정신의 상실이다"<sup>33)</sup>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상실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중국문학계의 새로운 조류인 문학의 '유희'는 분명 서구의 포스터모더니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서구의 '문학유희' 원칙과는 중국에서 유행되고 있는 '노는 것' '유희'와는 다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서린(徐麟)은 "서구 모더니즘문학은 가치관념의 위기와 문화적 전환이라는 심원한 배경을 바탕으로 대두했다. 언어 형식이 역사의 고도 위로 떠오르게 된 까닭은 바로 서구인의 언어와 존재관계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그 유희 규칙이 엄숙할 뿐 아니라, 유희의 태도 또한 진지하고 성실하다. …… 그러나 중국 당대의 '놀이판 문학(玩文學)'가들이 만든 '유희' 작품은 이미 어떤 생존 방식도 풀어내지 못한다. …… 인문정신은 바로 이러한 쾌감 속에 상실되었다"라고 비

31) 왕효명, 『人文精神尋思錄』 2-3쪽

32) 왕효명 편, 위의 책, 4쪽

33) 왕효명 편, 위의 책, 6쪽

관한다.<sup>34)</sup>

왕효명도 “최근 이년간 유행한 조소와 조롱을 특색으로 하는 소설과 시가에 이르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문학의 신성함에 대한 배반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 우리는 오히려 강렬하게 공통적인 후퇴 경향, 정신적 입각점에서 스스로 후퇴함, ‘문학은 반드시 인간의 생활에 대한 감응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후퇴, 심지어 ‘이 세계에 확실히 정신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의 후퇴를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 … 이러한 후퇴 또는 자기기만 현상만큼 이 시대 인문정신의 위기를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해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sup>35)</sup>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문정신의 위기는 신 중국 성립이후부터 이미 예견된 것임을 지적한다. 즉 지식인들이 국가이데올로기의 선전이라는 측면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서 지식이 가져야 할 비판정신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미 인문정신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사화(陳思和)는 “1950년대 이래로 인문학은 국가 이데올로기의 계획체제 속에 귀속되어 이데올로기의 주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인문학은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야만 하는데, 이데올로기로 정착되고 나서는 체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 1950년대 지식인들은 국가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사람들로써 그들이 향유한 것은 국가 간부의 대우였으며, 정치적 경제적 지위는 당연히 일반사람보다 높았다. …일반적 상황으로 말하면, 목전의 상품경제가 불러일으킨 배금주의가 범람하는 가운데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계획체제 내에 의존하는 인문학 및 근래의 사상 해방운동의 영향 아래서 점차 이러한 계획체제와 유리되어 나왔지만 학술전통이라는 측면에선 여전히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인문학이다. 이 때문에 우리들이 인문학의 위기를 논할 때 먼저 이러한 인문학 자체가 인문정신을 구비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쉽게 소극적 결론을 얻게 되어, 인문정신이 시장경제의 개혁 중에 퇴락하고 말았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인문정신이란 과제가 비록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 문제 자체는 이미 전체 당대사 속에 존재해온 문제이다.”<sup>36)</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현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곧 바로 지식인의 자기반성으로 이어진다. 최의명(崔宜明)은 “오늘의 문화는 거의 폐허의 형국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인문정신의 위기라는 것도 알고 보면 문화인들의 생존위기에 지나지 않는다”<sup>37)</sup>고 말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문정신의 탄생을 간절히 바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사화는 “공맹은 자신들의 학술적 이상과 학술 전통을 가지고 조정에 들어갔으며 결코, 통치자가 필요로 하는 일에 자신을 두지 않았다. 다만, 통치자라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요구하고 통치자를 설명시킴으로써 지식인의 도통(道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sup>38)</sup> 이것은 인문정신이 갖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인문정신은 결코 지식인들이 의존하여 자위할 아Q주의가 아닐뿐더러, ‘당신이 허리에 천만관의 돈을 두르든 말든, 나는 스스로 인문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소극적 방어도 아니다. 인

34) 왕효명 편, 위의 책, 8쪽

35) 왕효명 편, 위의 책 10-11쪽

36) 왕효명 편, 위의 책, 56쪽.

37) 왕효명 편, 위의 책, 15쪽

38) 왕효명 편, 위의 책, 21쪽

문정신은 일종의 현실참여(入世)의 태도이며, 지식인들의 세계와 사회에 대한 독특한 이해 방식이자 개입방식이다”<sup>39)</sup>라고 인문정신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문정신이 가지고 있는 비판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비진종(費振種)은 “우리가 지금 인문정신 재건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것은 인문정신의 보편원칙을 규정해내는 문제입니다. 이 보편원칙은 일종의 부정원칙 혹은 거절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0)</sup>

여기서 그들이 강조하는 인문정신은 각자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중국의 전통의 인문정신을 대변한다고 하는 인간을 본위로 하는 유가적 전통의 인본사상에 입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문정신의 상실을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규정하는 인문정신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이론적 논증을 요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인문정신의 상실과 재건을 말하면서 전통적인 유가적 전통의 인문정신으로 귀결하려는 듯한 결론으로 이끄는 것은 인문정신의 재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들의 논의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도 ‘경제적 요인’ 이나 ‘상업주의’적인 외적인 요인에만 눈을 돌리고, 그러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이끌고 사회를 상업주의적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 현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분석은 빠져 있다. 이것은 인문정신이 비판정신과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과 거리가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의의 한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 인문정신 상실에 대한 반론

인문정신의 상실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대하여 왕삭 등 이른바 ‘下海’에 성공한 젊은 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그들은 ‘선택의 자유’와 ‘서로 다른 개성의 평등한 공존’을 내세우면서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의 문학을 평가’하는 비평의 낙후성과 비평가의 독단을 강하게 비판한다. 왕삭은 “어떤 이들이 크게 떠들고 있는 인문정신의 상실이란 사실은 자신들이 과거처럼 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 대한 관심의 시선을 상실한 것이며, 그들에 대한 숭배의 눈길을 상실한 것인데, 그기에 무슨 인문정신의 상실이라는 것이 있는가”<sup>41)</sup>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왕몽은 적극적으로 왕삭을 비롯한 이른바 下海(돈벌이)를 중시하는 학자들을 옹호하고 나선다. 왕몽은 “시장경제가 비감한 상실감을 불러일으킨 것인가? ‘금전을 중시하는’(向錢看)의 실리주의가 도덕의 상실을 초래하고 사회 기풍을 타락시킨 원인이 되는가? 만약 지금 상실되었다면 물겠는데, ‘상실되기’ 이전에 우리의 인문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상실감 중 어떤 것들은 통속적 대중문예를 겨냥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통속적 대중문예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 50년 60년대 70년 같은 시기에 우리는 휴머니즘(Humanism)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는가?”<sup>42)</sup>라는 반문을 제기하면서 ‘인문정신’의 상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왕몽은 우선 ‘인문정신’의 회복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 현대 중국

39) 왕효명 편, 위의 책 21쪽

40) 왕효명, 위의 책, 68쪽

41) 왕효명 편, 選擇的自由與文化態勢, 93쪽

42) 왕효명 편, 人文精神問題偶感, 위의 책, 106

이 지나온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인문정신이 일종의 ‘정신’임을 강조할 때 열악한 경제 현실과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에 대해 왕몽은 심한 반감을 제기한다. 그것은 그들의 배후에 깊게 드리운 ‘문혁’의 그림자에 대해 심각한 피해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물질적인 기초에서 분리된 정신의 관점에서만 보면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훨씬 더 ‘인문적’이라”<sup>43)</sup>고 지적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국가 집단 즉 정부가 경제발전 법칙을 인식 장악해서 의도적으로 운용하여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무정부 상태를 제거하여 인류의 주관적 의지와 객관적인 경제적 수요를 결합하여 사람들을 진정한 경제활동 사회활동 역사발전의 주체로 되게 한다는 입장에서 더 인문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왕몽은 “계획경제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거짓인문정신에 있다”<sup>44)</sup>라고 지적한다. 계획경제 하에서는 일상적 인간들의 욕망과 수요를 무시하고 부정하며, 살아 있는 진실한 인간을 무시하고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大公無私한 인간에 집착한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순수한 정신 인간 본성을 강조함을 통한 정치투쟁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sup>45)</sup>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첫째는 인위적으로 인문정신에 대한 유일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지 말아야 하며, 둘째 인문정신과 비인문정신 상에 명확한 경계를 그어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흑백논리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셋째는 (임의로) 가정한 혹은 끌어들이 인문정신을 취사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sup>46)</sup>고 주장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왕몽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왕몽의 문학에 대해서 인문주의자들이 내린 평가가 공정한 것인가를 묻는다. 왕몽은 우선 소위 ‘건달문학’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부정한다. “어떤 상실감은 ‘조소문학’과 ‘롬펜문학’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조소와 롬펜의 통속적인 대중문학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는 영웅과 전투의 문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인문정신은 영웅과 전투의 정신인가? 아니면 조소는 반인문정신인가? 유머는? 유머감각은 인문정신 상실의 징조인가? 롬펜문학에 담겨 있는 문학 속의 ‘롬펜’인가? 나는 몹시 곤혹함을 느낀다.”<sup>47)</sup>

전통적인 비평가들은 모두 왕몽 소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그가 사용한 거침없는 언어들, 이제까지 본격 문학 속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회의 부정적인 인물들, 그들이 사용한 은어와 속어 이야기 전개와 빠른 속도감 등은 사실 아무리 많은 대중적 인기를 얻은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작품과 다른 형태에 익숙해 있지 않았던 비평가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의미를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왕몽은 “문학에서 최소한의 유머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인문정신이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제기한다. 모든 작가들이 ‘인문정신’의 잣대로 시비를 논한다면 그것이 바로 ‘잠재적인 문화전체주의’라고 비판한다. 각 작가의 다양성을 인정해야함을 강조한다. 왕몽은 왕몽의 소설이 본격적인 ‘풍자’와는 다른 ‘조롱’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취한 문학적 방법인 빈정거리기를 택한 이유가 물질적 풍요를 위해 달려가고픈 욕망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물질적 추구 자체를 죄악시 해 왔던 사회가 만들어 놓 온갖 위선에 가득 찬 것들을 폭로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했다면 굳이 ‘풍자’와 ‘빈정거리기’를 구분해가면서 그의 소설을 폄하시

43) 王蒙, 人文精神問題偶感, 108 쪽

44) 왕몽, 위의 논문, 109쪽

45) 왕몽, 위의 논문, 110쪽

46) 왕몽, 위의 논문, 112쪽

47) 왕몽, 위의 논문, 107쪽

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것은 거짓 도덕과 거짓 숭고의 자세를 통렬한 비판의 수단으로 삼을 것임을 강조한다.<sup>48)</sup>

이처럼 경직되고 거짓된 '사회적 위선'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본격소설과 통속소설로 구분될 수 없다. 작가로서 어떤 관점에서 자기 시대를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작가의 정신세계를 읽어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건달문학'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대중적 흐름에 따라 가는 작가들을 모두 매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달문학'이란 용어 자체 상당히 위선적인 표현일 것이다. 만약에 왕삭의 소설에서 소위 '건달'의 출현을 제외하면, 그의 작품은 '건달문학'이 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명칭을 즐겨 쓰는 일련의 문인들은 여전히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 즉 상업화의 물결이 도래하고,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과 그리고 예전에 없던 대중들의 새로운 요구의 출현 앞에서 점차 전통적 지식인의 자리에 이제는 건달까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음에 대한 전통적 지식인의 지극한 상실감의 표현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체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온갖 욕망이 춤추는 사회, 그러나 욕망은 쉽게도 오염되었으면 서도 그것을 실현시킬 아무런 권력과 정당한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은 새로운 자기 표현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건달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러한 모순된 사회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표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자본주의적 시장의 원리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체제의 재편과정에서 중국인들의 내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탕주의를 대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함에 의하여, 현실의 물질적 조건의 변화와 사회의 흐름에서 벗어나 무너져 내린 욕망의 패배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욕망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다. 왕몽 역시 이러한 점에서 '과연 왕삭의 소설 속에는 보통 사람들의 눈물과 억눌림이 없다는 말인가? 건달들은 동정을 하거나 이해를 해줄 필요조차 없는 것일까? 건달들은 한꺼번에 다 없애버린다면 그것 역시 인문정신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너무 전체적이고 너무 교조적이지는 않을까?'<sup>49)</sup>라고 질문하면서 왕삭의 비판정신과 자유정신을 높이 사고 있다.

그 다음으로, 90년대 문화의 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을 시장 경제에서 찾는데, 과연 시장경제가 문화를 황폐화시킨 주범인가를 반문한다. 왕몽은 시장경제가 인간의 사적 욕망을 팽창시킨다고 말하기보다는 시장경제 아래서의 인간의 사적 욕망은 더욱 공개화 되고, 그 욕망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해야 옳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말한 거짓 인문정신은 인간의 정당한 욕망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왕몽은 '부유는 문명의 굴레가 아니라 열매'이며 시장경제의 발달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이상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로 바꾸어주는' 물질적 토대이며, 사회적 기반이라고 주장한다. 계획경제에 비하여 시장경제는 무엇보다도 살아 있는 진실한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긍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중국이 나아갈 길은 공적인 것만을 중시하고 사적인 욕망을 무시하는 '군자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정직한 노동과 노력에 의해서 발전의 기회를 얻는 데 더욱 공평하고 체계화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면,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더욱 유효한 수단이며, 이 속에서 인문정신을 찾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48) 劉再復도 "건달문학은 과거의 기형적인 엄숙문학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다"라는 측면에서 왕삭의 대중문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이택후, 유재복, 『고별혁명』 370 쪽 참조).

49) 왕몽, 人文精神問題偶感, 『人文精神尋思錄』, 116 쪽

따라서 왕몽은 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받아들여지고 또한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대중문화를 적극 옹호한다. 그에 반하여 문화적 일원주의와 정치적 전제주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시민문화 대중문화 평민문화를 옹호하고, 문화의 상품화 시장화를 인정함을 통하여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혹은 일원론적 사회로 결코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인문정신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의 문화적 전제주의’를 주장할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인문정신을 위한 유일한 평가척도를 세우거나 인문정신과 비인문정신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으려고 하거나,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외부로부터 끌어 들여온 인문정신을 취사선택의 유일한 척도로 삼아서 안 된다. 즉 정신적 가치를 단 한 가지에 두거나 배타성을 갖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문정신의 맹목적 신성화나 절대화는 모든 과거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문화와 사회전반에 걸쳐 교조주의적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왕몽은 인문정신이 갖는 본질적 함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중국의 현대사 특히 문화대혁명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제기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왕몽은 “인문정신의 상실을 애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인문정신의 부활을 통해서 과연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것은 인문정신 부활을 주장하는 학자들처럼, 통속문학의 범람 상업화된 문화의 횡행을 시장경제의 문화적 폐해라고 한다면, 시장경제가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인문정신이 과연 지금보다 더 살아있었는가 라고 반문하게 된다. 그의 이러한 질문 속에는 50년대 초반과 중반의 정치운동과 사상운동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곧 70년대까지 인문정신이나 휴머니즘이란 이름으로 지식인들이 시대의 지적 또는 이념적 담론을 주도해선 시기에도 상실감은 이미 존재했다는 말이다. 단지 상실감을 안겨준 주체가 다를 뿐이다. 70년대까지 모택동이 규정한 휴머니즘에 의해 그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90년대는 소위 현대화라는 담론에 의해 주변화된 지식인의 상실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의 가장 재미있는 현상은 일반 국민들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상황에서 몽둥이를 들었던 사람과 몽둥이로 맞았던 대상들이 함께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이다”<sup>50)</sup>라고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문정신의 상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반대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대부분 ‘상업화’되어 가는 중국의 사회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체성과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 (3) ‘인문정신’ 담론의 한계

지금까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사회적 체제의 전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학과 예술 방면의 상업화 경향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인문정신의 상실’과 ‘위기’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았다. 인문정신에 관한 토론은 1990년대 지성계에서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다. 그것은 1989년 이후 오랜 침묵기에 접어들었던 지식인 계층에서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광범하고 열렬하게 토론을 벌였던 문제였다는 것과, 권력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순수하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반세기 동안 중국에 있어본 적이 없었던 중

50) 왕몽, 위의 논문, 119쪽

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것이다. 또한 어떤 학자는 '민주주의의 맹아'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문정신의 논쟁은 1990년대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들이 위기의식과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감에서 즉자적으로 시작되어 논의가 전개 된 것이다. 그러나 논쟁의 주체들이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 가운데 하나로 현실비판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들이 비판하는 대상은 모두 문화현상에 국한되어져 있다. 현 중국이 당면한 사회문제 가운데 심각한 문제인 정치체제에 관한 비판,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은 없다. 시장경제가 가져다준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시장경제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도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현 중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권력에 의해 허용된 제한된 담론의 장에서의 논쟁이기에 시작부터 한계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지식인들이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세계로 이끌어 가는 국가 권력 자체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의 문화적 상황의 흐름은 본질적으로 중국이 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회로의 전환 과정으로 야기된 것이다. 그런데 인문정신론은 1990년대의 중국 문화의 현상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채택에 따른 물질 토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 그리고 세계적인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받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전환을 총체적으로 인식해 내지 못한 채,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실천 차원에 머물러 버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체제의 변화와 혼란에 대한 처방을 개인의 도덕적 자질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것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지식인들은 국가권력 자체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논리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주체는 중국에서는 강력한 국가 권력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사회변화를 진행시키게 됨에 따라 지식인들은 점차 이러한 흐름에서 점차 소외를 당하게 된다. 그에 따라 지식인들의 주장은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영향이 점점 줄어들어 들어가게 되었다. 지식인들의 본분이 비판정신과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참여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자체로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인들의 비판정신이 살아 있는 곳에 그 사회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 중국을 표면에 드러난 경제적 수치에 의한 성장만을 통하여 중국사회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중국사회의 변화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 4. 나오는 말

이상에서 '韓流' 현상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90년대 이후의 중국 문화의 전개 방향에 대하여 9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인문정신'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인문정신의 논쟁 발생 배경과 그 전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사회의 변화의 근본적 방향은 '시장화'라는 목표 하에 점차적인 체제전환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간에 다소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였지만, 중국이 개혁개방이후 20여 년 간 걸어온 길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은 사회주의적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사회로 전환을 의미하며,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고 할 수 있다. ‘시장화’로의 급격한 체제 전환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의욕과 경제적인 동기를 자극하였고, 과거의 계획경제에 비하여 훨씬 큰 경제 효과를 가져오게 된 반면, 중국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모순도 가져오게 되었다. ‘상업화’의 논리로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구조 변화를 가져와 사회제반 인프라가 구축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의 제반 여건과 생활수준도 향상되어졌지만, 그에 따른 이념적 공백과 전통적 윤리의식이 급속히 와해됨과 동시에, ‘시장경제개혁’의 결과로 근 4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주의’ 계층의 구조도 흩어지게 되었다.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이 주도했던 경직된 윤리의식에서 벗어나, ‘소비문화’가 주도하는 변화된 사회 현실에 맞는 가치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식인의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로 사회구조의 변화는 지식인들에게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되었다. 엄숙작가들이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해(下海, 돈벌이 중사)하는 현상은 이러한 문학주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반영해 준다. 구시대 계획 경제체제 아래에서 문화의 창작 작업에 종사할 때는 이익의 문제를 회피하여 왔지만, 상품경제의 대 조류가 밀려오면서 지식인들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지위를 급격하게 상실하게 되었다. 중국사회 전체가 거대한 시장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가치혼란과 상실을 겪게 되고, 작가들은 경제개혁의 과정 중에서 점차로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래서 90년 이후 지식인 계층에서 생존을 제일의 가치로 두고,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작품활동을 추구하는 일련의 지식인들이 출현한다. 이들은 치열한 현실인식을 지니지 못한 채 부유하고, 지식인이 지녀야할 정신적인 가치와 자율적 기능을 상실하고, 통속적 작품들을 쏟아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체제 전환의 과정 중에 출현하는 필연적인 한 현상이지만, 지식인이 갖추어야할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이러한 지식인의 상업화 현상에 대한 자기 반성을 시도한다. 이것이 이른바 ‘인문정신’의 대 토론을 불러오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sup>51)</sup> 이 논의의 중점은 사회문화의 각 방면 특히 문학방면에서 지식인들이 ‘상업화’의 시장경제논리를 따르게 됨에 따라,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인문정신’의 상실에 대한 집중적 비판과 아울러 새로운 인문정신의 건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러한 논쟁을 주도한 학자들은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 가운데 하나로 현실비판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들이 비판하는 대상은 모두 문화현상에 국한되어져 있다. 현 중국이 당면한 사회문제 가운데 심각한 문제인 정치체제에 관한 비판,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은 없다. 시장경제가 가져다준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시장경제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도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현 중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권력에 의해 허용된 제한된 담론의 장에서의 논쟁이기에 시작부터 한계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당 대사에서 겪어온 고난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중국은 우리의 삶의 각 부분에게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류’ 현상을 분석하는 데 빠져 있는 것은 중국정부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중국은 사회개혁의 많은 부분에서 중국정부의 의도와 입김이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문화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여 단순히 흥분된 목소리를 더 높이거나 우월한 기분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한중문화 교류에 있어서 보다 차분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51) 陳思和主編, 『中國當代文學史教程』 324 참조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중간의 일방적 문화교류를 지향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문화교류와 '한류'가 확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우리의 문화적 내용을 풍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한류'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면 선 듯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 지금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대중가수들의 노래가 과연 한국의 전체 대중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의 대중문화도 10대 위주의 대중문화에서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다 성숙된 문화로 발전할 때 우리의 문화가 다른 국가에서도 수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불건전하거나 단순한 오락적 기능만을 앞세워 순간의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 생명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많다.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국가전략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보다 주의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잠시의 경제적 우위에 취하여 중국의 경제적 역량을 무시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한류'라는 현상에 도취하여 자만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장래는 그리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시대 상황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고, 세계 속에서 보다 나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중교류가, 특히 문화방면에서 어떻게 교류하고 발전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孟繁華：『衆神狂歡-當代中國的文化衝突問題』，今日中國出版社，1997，北京
- 何清漣：『現代化的陷阱-當代中國的經濟社會問題』，今日中國出版社，1998，北京
- 馬立誠 凌志軍：『交鋒 -當代中國三次思想解放實錄』，今日中國出版社，1998，北京
- 田雪原：『大國之難-當代中國的人口問題』，今日中國出版社，1997，北京
- 王曉明編：『人文精神尋思錄』，文匯出版社
- 張岱年 程宜山：『中國文化與文化論爭』，中國人民大學出版社
- 吳光：『中華人文精神新論』，上海古籍出版社
- 戴錦華：『霧中風景-中國電影文化 1978-1998』，北京大學出版社，2000
- 戴錦華：『隱形書寫-90年代文化研究』，江蘇人民出版社，1999
- 陸弘石 舒曉鳴：『中國電影史』，文化藝術出版社
- 靳輝明 羅文東：『人道主義與現代化』，安徽人民出版社
- 함재봉：『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전통과현대
- 楊時春：『現代性與中國文化』，國際文化出版公司，2002.
- 裴長洪 外：『21世紀中國人文社會科學展望』，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龐中英：『全球化反全球化與中國(解釋全球化的複雜性與多樣性)』，上海人民出版社，2002
- 弗雷德里克 外：『全球化的文化』，南京大學出版社，2002
- 尹鴻 外：『全球化與大眾傳媒』，청화대학출판사，2002
- 段若鵬 外：『中國現代化進程中的階層結構變動研究』，인민출판사，2002
- 黎德化：『中國文化的現代化』，內蒙古人民出版社，1999
- 郭太風：『文化的主流和支流』，學林出版社，2002
- 馬戎 外：21世紀：『文化自覺與跨文化對話(二)』，北京大學出版社，2001
- 約翰·菲斯克：『解讀大眾文化』，南京大學出版社，2001
- Jim, McGuigan：『文化民粹主義』，南京大學出版社，2001
- 馬克·波斯特：『第二媒介時代』，南京大學出版社，2001
- 陳剛：『穿越現代性的苦難』，中國工人出版社，2001
- 王曉明：『在新意識形態的籠罩下-90年代的文化和文學分析』，江蘇人民出版社，2000
- Matei Calinescu：『現代性的五副面孔』，商務印書館，2002
- 南帆：『雙重視域-當代電子文化分析(大眾文化批判叢書)』，江蘇人民出版社，2001
- 包亞明 外：『上海酒吧-空間消費與想像(大眾文化批判叢書)』，江蘇人民出版社，2001
- 潘知常：『大眾傳媒與大眾文化』，上海人民出版社，2002
- 鄒廣文：『當代中國大眾文化論』，遼寧大學出版社，2000
- 黃衛平：『當代中國政治研究報告』，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2
- 李澤厚：『고별혁명』，북로드

- 사회와 철학연구회 :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이학사  
원승룡 김종현 : 『문화이론과 문화읽기』 서광사  
백원담 편역 : 『인문학의 위기』, 푸른숲  
로렌스 브람 : 『중국의 시대』, 민음사, 2002  
이강수 : 『대중문화와 문화산업론』, 나남출판사  
이중희 : 『중국영화의 어제』, 오늘, 내일, 책세상  
새뮤얼 헌팅턴 : 『문명의 충돌』, 김영사  
마단 사립 외 : 『테리다와 푸꼬, 그리고 포스터모더니즘』, 인간사랑  
황희경 : 1990년대 중국 학술계의 동향- 인문 정신 논쟁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1997, 한국사상연구회  
김정수 : 한류현상의 문화산업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11권 4호, 2002  
설현영 : 지구화 시대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표현인문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범한철학』 24집, 범한철학회 2001 가을  
백승균 : 인문학의 개념 정립, 『철학연구』 73집 대한철학회, 2000. 2  
백승균 :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철학연구』, 74집, 대한철학회, 2000. 5  
임재진 : '인문학위기' 담론의 실제와 그 반성, 『동서철학연구』 21호, 동서철학회

K C I

## **Dispute on 'Humanistic Spirit' in Chinese Modern Culture** **-Focusing on Chinese Cultural Phenomena of 90's-**

Seung-Hyun, Park

This thesis was written on the basis of interest in the cause of current 'Korean Wave' phenomena.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understand development object of Chinese modern culture. For this,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humanistic spirit dispute were discussed focused on 'humanistic spirit' dispute which happened in the early 90's.

China has gradually transformed its systems under the goal of 'market economy' as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social change after reformation and opening policy. Social conditions and living standard were improved as social infrastructures were established and productivity improved by the structural change into what we call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s using the logic of 'commercialization'. But as the result of 'market economy reform' as well as ideological gap and rapid collapse of traditional ethics, the structure of 'socialistic' class,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about 40 years, also became collapsed. Chinese intellectuals began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value sense suitable to the changed social reality based on 'consumption culture' escaping from strict ethics which ruled socialistic ideology.

During the transformation of Chinese society into a gigantic market, people became to experience the confusion of value system and the feeling of loss, and writers were gradually pushed out to the corner of the society during the process of economic reform. So, a group of intellectuals who write for commercial interest with placing emphasis on survival as the most important thing appear after 1990. Those people produced tons of conventional works by the loss of mental value and autonomous function that intellectuals are supposed to have without intense recognition on reality. Some scholars who emphasize the responsibility of intellectuals try reconsideration on commercial phenomena of some intellectuals. That is the direct reason of what we call 'humanistic spirit' discussion. This discussion is focused on intensive criticism about the loss of 'humanistic spirit' that intellectuals are supposed to have and on the establishment of new humanistic spirit.

**Key Words**      Korean Wave, Commercialization, Humanistic spirit, Chinese style socialism

KCS I